

오세정

건국대 축산대 교수/한국가금학회 회장

일본의 양계현황과 수급조정

일 본의 양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10여년은 앞서 있고 선진화된 느낌이다. 미국은 광활한 국토에 인구가 적고 대기업으로 발전한 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지형적인 조건이 같으며 인구가 많아 우리의 여건과 흡사한 점으로 보아 일본의 것을 많이 모방하고 미국식의 선진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채란계의 사육동태를 연도별로 고찰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 농가방사식 부업, 겸업식의 양계였던 것이 70년후부터는 사육농가가 $\frac{1}{3}$ 로 감소한 반면 사육수수는 3배로 늘었으며 사육농가호수는 점점 감소하여 '86년에는 '56년도에 비해 2.5%이며 '75년도에 비하면 23%로 급속한 감소를 보여 사육규모의 확대와 전업 또는 기업형태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80년도까지는 100만호가 되던 것이 지금은 26만호(산란용, 육용종합한 사육농가)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특별한 자각과 대책없이 더욱 국제화 시대에 처하여 외국에서 종란, 난분, 가공품이 자유로이 수입된다면 더욱 사육농가호수는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육계의 사육실태를 보면 표 2와 같이 '66년도에 19,160호였던 것이 점차 줄어 '86년도에는 6,745호로 감소된 반면 사육수수는 21,920천수였던 것이 '86년도에는 155,788수로 증가하였으며 출하수수도 약 6배로 늘었고 1가구당 출하수수도 6,885수에서 109,200수로 확대,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육농가호수는 줄어드는 반면 생산량은 수요증가에 따라 증대되어 가고 따라서 농가당 규모의 확대로 전문화, 기업화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순리이고 자연현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무역의 자유화, 수입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에 생산자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능력의 향상과 동시에 생산원가 절감, 품질향상, 유통체제 개선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는 안정된 양계산업 보호를 위하여 협의기구를 구성, 강력히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표 1. 채란계 사육현황

연 도	사육호수(호)	성계수수(천수)	1가구당 수수(수)	생 산 량
1956	4,507,500	39,538	8.8	6,743
1970	1,696,000	118,201	69.7	1,733,669
1975	507,300	116,420	229.5	1,787,845
1981	186,500	121,822	653.2	1,999,542
1985	123,100	127,596	1,036.5	2,152,356
1986	116,100	129,649	1,116.7	2,234,747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

표 2. 육계 사육현황

연 도	사육호수(호)	사육수수(천수)	출하수수(천수)	출하체중(톤)	1호당 출하수수
1966	19,160	21,920	131,926	177,388	6,885.5
1971	17,740	63,114	328,902	570,784	18,540.1
1976	10,739	92,934	484,168	978,671	45,085.0
1981	8,309	131,252	621,274	1,416,798	74,771.2
1986	6,745	155,788	737,232	1,802,004	109,300.5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

일본에서는 '74년부터 양계시책으로 계란가격안정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정부차원에서 보조까지 하고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하며 공생, 공익, 공영하는 조합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난가안정을 위해 계획생산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출하조정과 수급안정특별지도사업으로 표 3과 같은 기구조직,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민 협조하에 유기적인 연관과 자제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난가를 최대한 안정토록 노력하며 상호 정보교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정을 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체계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난가안정기금제도는 난가가 이상하게 폭발할 때 보완조치로 공생, 공익, 공영하자는 의도와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영세한 양계업자 일수록 꼭 필요한 것이며 수급안정, 물가안정, 소비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협조, 협력, 화합하지 않고는 실현되기 힘든 사업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담당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성공여부를 지배하게 된다.

기구를 만들어 운영관리비나 많이 지출되고 관료적 사상이나 안일무사주의 생각은 오히려 기생충역할이 되고 비협조, 비협력되어 무용지물이 되며 기대하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결과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양심적이고 성의와 열의있는 사명감을 가진다면 하루속히 이 제도가 지역별, 전국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표4에 일본의 제도를 소개한다.

계란가격안정기금 개요

1. 기금의 개요

기금에는 사단법인 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과 사단법인 전일본난가안정기금 등 두종류의 기금이 있는데 전자는 통합농협계통, 후자는 전문농협계통이 주가 된다.

2. 기금의 주된 업무

① 가격차이의 보충업무

기금은 계란가격이 일정기준가격('86년도는 kg당 227)을 하회한 달에 판매한 계란에는 가격차보충을 해 준다.

표 3. 난기안정을 위한 계획생산추진사업

② 계란수급안정특별지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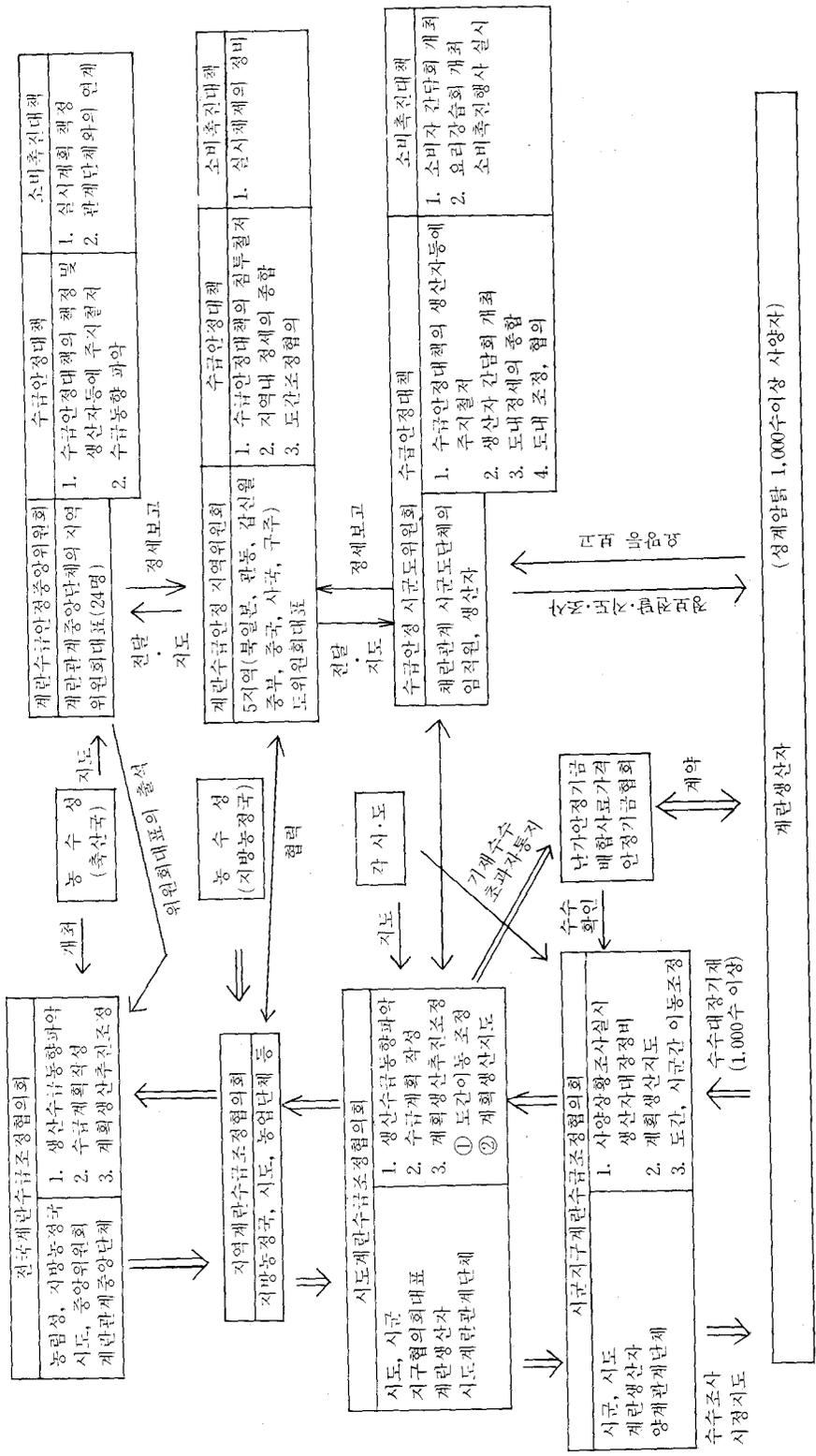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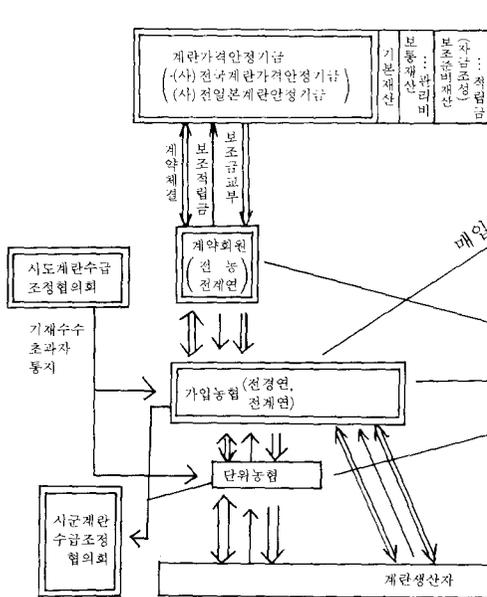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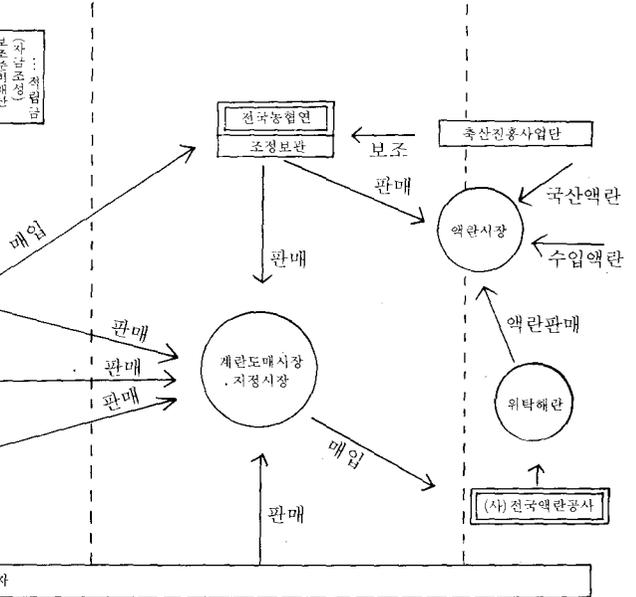


표 4. 계란안정제도의 개요

① 난가안정기금제도(난가이상폭락시보조)



② 생산자단체에 의한 조정보관(난가이상폭락시 매입)



② 조정보관에 의한 손실의 보충과 이익의 수입 업무

계란의 조정보관을 하였을 경우 그 보관에 의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충 또는 이익의 수입

③ 생산조정 추진

수요에 맞추는 계획적인 생산을 하지 않으면 적정난가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일정 규모(성계우 5천수 이상) 이상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당면증가수수 억제제를 하지 말도록 국가의 방침에 협력하며 생산출하조정의 추진을 실행한다.

3. 계란생산자의 가입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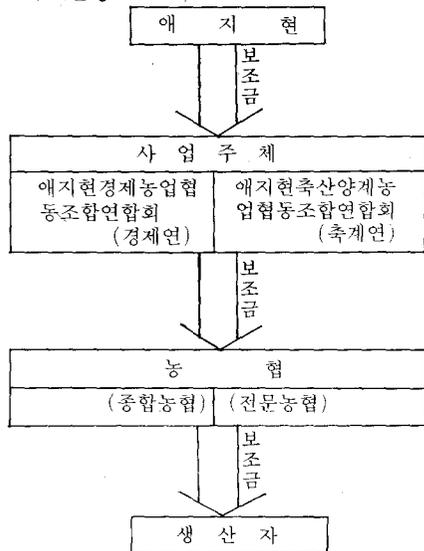
- ① 성계우 100수 이상을 항상 사육하고 있을 것.
- ② 계란의 전량을 가입하고 있는 농협에 판매위탁을 할 것.
- ③ 가격차 보충에 관해 계약을 판매위탁을 하는 농협과 연결한다.
- ④ 생산조정에 협력하고 있어야 한다.

4. 기준가격 및 적립금의 단가(1986년도)

- ① 기준가격 kg당 227
- ② 계란의 단위수량 만큼 보충적립금액(1986년도)

구 분	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	전일본난가안정기금
가입생산자	kg당 5円	kg당 5円
생산자단체	kg당 1円	kg당 1円
계약회원	kg당 0.75円	kg당 0.75円
계	kg당 6.75円	kg당 6.75円

보조금의 지출경로



난가안정기금의 가입생산자



**이제부터는
고용노동에 의한 양계는
완전자동화, 기계화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며
자기가족단위 노동에 의한
기계화에 의해
적정규모로 전환되어야 한다.**

양계산업의 근대화, 선진화를 위해 정부, 금융기관에서 많은 종류의 자금을 저이자로 대출, 지원하고 있다.

그 종류를 열거해 보면

① 농업 근대화자금 ② 농업일반자금 ③ 농업개발자금 ④ 농림어업금융공고자금 ⑤ 공해방제 시설정비자금을 농협, 현(縣) 신용농협운영 연합회 각 상호은행, 기타 은행에서 대출되고 있다.

또한 특별이자보급제도로서

① 지반침하대책자금 ② 재해자금 ③ 공동이용시설자금이 있고 ④ 산간지진홍자금 ⑤ 지반침하대책자금 ⑥ 재해자금 ⑦ 공동이용시설자금이 있고

주무장관의 지정시설자금으로서

① 축산경영환경보급금 ② 특정농업시설 등 ③ 특별진흥사업 ④ 자작농유지자금 ⑤ 진흥산촌과소 지역경영개선자금 등도 각종 자금이 지원, 융자되며 이론적 활성화에 촉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보조가 아니고 이자를 지급하는 융자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돈으로 사채놀이, 부동산 투자하는것과는 사고를 달리해야 한다.

그리고 애지현에 양계관계단체가 13단체가 있으며 양계관계보도잡지, 신문 등이 5개사가 있어 각종정보, 기술, 홍보 등을 하며 양계관계 전문농협이 22개소 있고 양계관계농사 조합법인이 37개소로서 법인이 아닌 것까지 합한 조합체제는 100여개나 된다고 한다.

‘못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는 격언과 같이 같은 업종끼리 화합단결하면 공존, 공생, 공영할 수 있으며 제각기 개별행동을 하면 자유경쟁체제하에서 능력과 힘이 있는자는 살고 능력없고 약한자는 죽는 법이거늘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눈앞에 둔 지금 국제경쟁을 위해서는 같은 계통끼리 지역별 조합, 협회 등 뭉쳐서 기술개발의 정보교환, 능력향상을 위한 상호경쟁과 의견교환, 제생산재 구입의 공동으로 원가절감, 품질보장, 시설공동이용과 활용, 공동방역, 분업화, 전문화 등 상호협력 조화를 하면 우리나라 양계도 선진화,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이제 고용노동에 의한 양계는 완전자동화, 기계화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며 자기가족단위 노동에 의한 기계화에 의해 적정규모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루속히 자각, 성찰하여 시설의 개선으로 지출의 절감, 즉 수입없는 지출은 적자운영이 되므로 계산하는 양계, 경영수지를 맞추는 기술과 경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수입을 더 올리는 양계, 지출을 억제하며 원가를 절감하는 양계를 생각해야 한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타성과 인습에서 하루속히 정신개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일본에 와서 절실히 보고 느낀 점이다.

다음에는 40가구가 40만수를 사육하는 양계조합을 심층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